# 새만금 송전탑 건설공사 3년만에 재개

## 군산~새만금변전소 30.6㎞ 구간 88기 설치 사업
## 주민 반대로 46기 설치 못해…한전 "산단 전력 취약"

한국전력공사가 군산과 새만금을 잇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3년 만에 재개한다.

한국전력은 이르면 12일 군산시 미성동 일대에서 지난 2012년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됐던 새만금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한다.

새만금 송전선로는 새만금 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해 군산변전소~새만금변전소 구간(30.6㎞)에 345㎸급 송전탑 88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군산시와 한국전력은 지난 2008년 12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임피·대야·회현면 14.3㎞ 구간에 송전탑 42기를 설치했다. 나머지 회현면·옥구읍·미성동 구간 송전탑 46기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2012년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주민들은 건강권과 재산권을 내세우며 농경지를 우회하는 대안노선(만경강 방수제~남북 2축도로)을 주장했다. 이에 한전은 추가비용 부담을 내세우며 거부해 마찰을 빚다가 2013년 국가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극적으로 조정안이 마련됐다.

조정안은 '인근 공군비행장을 운용하는 주한미군이 송전탑 높이를 39.4m까지 낮추는 데 동의하면 한전은 우회노선을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지난해 11월 '대안노선 불가' 입장을 회신했으며 주민들은 조정안 파기를 선언해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전은 대안노선 채택시 송전선로가 2021년 이후에나 완성된다며 대안노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전은 그동안 주민반대 대책위원회와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전문가협의체 운영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처럼 사업이 터덕거리자 군산 상공회의소와 기업들은 기업유치와 신규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송전선로의 조속한 완공을 촉구하고 있다.

군산상공회의소 이현호 회장은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이 늦어지면서 군산 산업단지내 기업들이 조건부 전력을 공급받는 등 큰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는 원활한 기업유치와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유인하는데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현재 군산지역은 154㎸ 송전선로 2개 루트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나 전력계통이 매우 취약해 송전선로 건설이 시급하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공사를 중단했으나 더는 미룰 수 없어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기자 · 전북취재본부장

# 순천시·의회, 유럽 정원 벤치마킹…'외유성 출장' 논란

## 13명 6000만원 들여 6박8일
## 세월호1주기 땐 동남아연수도

순천시 집행부 4명과 순천시의회 9명이 프랑스 쇼몽 국제 가든페스티벌에 참석차 해외출장을 추진해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였다.

순천시와 순천시의회는 14일부터 6박8일의 일정으로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쇼몽 국제 가든페스티벌과 선진정원 페스티벌 벤치마킹을 위해 유럽 3개국 해외출장을 떠난다.

문제는 출장일정 대부분이 프랑스 파리 특색화거리 방문과 네델란드, 영국, 프랑스 3개국의 1일 1곳 정원 벤치마킹 등 대부분 외유성 관광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다. 시민의 혈세인 시비로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전문성 있는 기관방문이나 세미나 참석 등은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내년 4월 '순천만정원 페스티벌'을 앞두고 벤치마킹을 떠난다는 집행부의 의도와는 달리 주무관들은 배제하고 소장과 과장, 녹지직 1명, 행정직 1명 등 집행부 4명과 의회사무국 3명, 시의원 6명이 출장을 떠나 세비로 호화 출장을 떠난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올해 초 순천시의회는 법적으로 정해진 1인당 여행경비 200만 원의 초과분을 상임위원회 간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유럽과 호주 등으로 원거리 호화 연수를 떠난 데 이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상황에서 7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과 라오스로 해외연수를 떠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개원후 9개월 동안 의원들이 이번을 포함 4번이나 시민들이 낸 혈세로 해외연수를 떠난 것은 전국에서도 찾기 힘든 사례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순천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해외연수는 한 번도 해외에 나가지 않은 의원들이 나가는 것"이라며 "지난번 5박7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과 라오스로 떠난 '통일안보 해외연수'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연수를 떠난 것이어서 의회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통일안보 해외연수'는 순천시에서 전체 여행경비 5790만원 중 77% 가량인 45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정읍시의회 '경제발전연구회' 결성

정읍시의회(의장 우천규) 의원들이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정읍경제발전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갔다.

황혜숙 시의원

연구회는 회장에 황혜숙의원, 간사 이만재의원, 회원에 김재오·최낙삼·이복형 의원으로 구성됐다.

연구회는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보조금 사업의 진단 ▲시내 지역과 농촌지역의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형평성 제고 ▲지방자치 활성화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등을 연구활동 분야로 설정했다.

회장을 맡은 황혜숙 의원은 "전문가 자문과 세미나 등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조례입법 및 집행부에 제시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의원연구모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고창 패러글라이딩 대회 지난 7~10일 고창 방장산 활공장에서 열린 '고창군수배 겸 한국리그 챔피언십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참가한 한 선수가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고창=고훈석기자 ghs@

# 전주시 장애인체육관 건립 추진

## 송천동 인라인 경기장 인근
## 91억 투입 내년말 완공 목표

전주시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공간인 전용 체육관 건립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송천동에 위치한 인라인롤러 경기장 인근에 국민체육기금 50억원 등 총 91억2000만원을 들여 장애인 체육활성화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전용체육관(국민체육센터)을 건립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향후 실시설계 등 각종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올 12월 중에 착공,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 전용 체육관은 부지면적 5만 2818㎡에 연면적 4500㎡(지상 2층) 규모로 장애인들의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체육시설의 경우 휠체어 농구, 배드민턴, 좌식배구, 보치아 등 다목적 재활체육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신체기능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실내 론볼링장과 사격장, 탁구장, 당구장, 헬스장, 사우나실 등도 들어서 장애인들이 한 곳에서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특히 지적 장애인들의 운동능력을 키우기 위해 특화한 체육시설을 마련해 전문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역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용 체육관 건립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등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복지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장애인체육회 노경일처장은 "선수단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올 상반기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지난 1월말 현재 3만3000여명이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 "남도의 멋과 맛에 반했어요"

## 전남공무원교육원 '남도문화체험' 인기
##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80명
## 해남·완도·강진 등 탐방 호응

전남도 공무원교육원이 중앙부처 및 타 시·도 공무원 80명을 초청해 '남도문화 체험' 교육과정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열린 남도문화 체험은 교육 신청 때부터 전남의 남부권인 해남, 완도, 강진이 일정에 포함돼 평소 방문하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 방문하지 못했던 타 지역 공무원들로부터 큰 관심을 보였다. 당초 50명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교육 신청자가 많아 80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교육 첫날인 8일 한반도 최남단 땅끝으로 유명한 땅끝마을을 비롯해 고산 윤선도 유적지, 대흥사 등 해남 일대를 방문했다.

9일에는 슬로시티인 청산도와 방문기간 중 개최중인 '장보고 수산물축제' 행사장 등 완도군을 방문해 남도의 멋과 맛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민선 6기 브랜드 시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지 중 하나인 강진 가우도를 비롯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다산초당 등 강진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일정을 마쳤다.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인 최정민 충남도청 주무관은 "거리가 멀어 평소 가보지 못했던 해남 땅끝마을과 완도 청산도 등 전남 남부지역을 방문하게 돼 기쁘다"며 "남도의 멋과 맛, 훈훈한 지역 인심에 반해 휴가 때 가족과 함께 다시 한번 오고 싶다"고 말했다.

윤광수 전남도 공무원교육원장은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간 교류를 통해 상호간 이해를 높이고 전남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남도문화체험을 연중 두 차례 운영 중에 있다"면서 "올 하반기에도 좋은 코스를 선정해 남도를 알리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은 남도문화 체험과정 외에도 광주·경남 교육원과 상호 교류과정을 개설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10월 '우리 전남 바로 알기 과정'에 광주·경남 공무원 20명을 초청해 운영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모텔 화순군 도곡면 대지 1671㎡(505) 건평 1010㎡(305) 4억 5천
• 레스토랑, 커피숍, 산수오거리에서 20분, 광주호에서 5분거리 영 업 잘 됨 대지1054㎡(319), 건물473㎡(143), 은행 2억3천 교환도가능 5억7천
• 유동 로타리 인근 4차선 도로 상업지 대지 335㎡(101) 건평 601㎡(185) 공시지가 3억9천 은행 2억2천 매도 4억
• 금남로 4가 병원·사옥 등 적합 5층건물 대지648㎡(196), 건물3410㎡(1032), 감정 23억 7800만원 매도 21억7천
• 영암군 월출산 관광지시설지구 대지 1026㎡(310) 건물 2085㎡(630) 민박 · 식당 · 매점 등의 시설 은행 8억5천 매도가격은 협의함, 전화요망
• 금남로4가 대로변 대지 317㎡(97) 건평 1235㎡(363) 은행 4억 3천 임대 9천에 월 460에 임대 중 공실 있음 14억
• 대인동 사옥 등 적합건물 대지 780㎡(236) 건물 1993㎡(603) 감정가 24억 7천 매도 20억 6층건물임
• 대인동 7층건물 대지 332㎡(100) 건평 1340㎡(423) 은행 4억 주택거주하며 임대생활에 적합 9억 5천
• 신안동 모텔 대지 364㎡(110) 건물 885㎡(268) 객실 28실 은행 7억 교환도 가능함 매도 9억 5천
투자 ◦ 매도 ◦ 교환
• 조선대 앞 대로변 동명동 5층 건물 대지 318㎡(96) 건평 736㎡(228) 상가와 안집, 원룸 18개 보증금 1억에 월 500선 수익 8억7천
•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산 16860㎡(5100) 2천 5백만원
• 광산구 송정동 상업지역 1117㎡(338) 전세1억2천 월 210 건물신축에 적합 12억
• 물류창고 · 공장 적합 광산구 삼거동 33000㎡ (10000) 26억
• 동명동 조선대 부근 시설 좋은 고시텔 대지236㎡(71) 건평732㎡(2221) 60실 공실없음 은행 3억 4천 월 1200만원 수입 안정적인 노후생활적합 8억 3천
• 양산동 1종 주거지 1317㎡(398) 다세대 · 빌라 적합 은행 2억 7천 매도 6억 2천
• 전원주택지 나주시 노안면 4344㎡(1314) 2억 8천
• 신안군 암태면 섬 56233㎡(17010) 교환가능 3억 7천
• 장흥군 유치면 산 75769㎡(22920) 매도 4240만원
☎ 문의 222-4994, 010-2632-5659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 원 주 택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 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됨. 전망 양호, 매3억8천
▶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 5,100㎡ 황토 주택 3동 교통편리, 매7억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 75㎡, 점포 26㎡, 매2억4천
농지 / 임야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및 대지 7,930㎡ 신축주택 4차선 국도 및 2차선 도로변, 매12억
▶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 전 배 과수원 6,089㎡ 생산관리 지역 투자유망 매 7억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답 2,975㎡, 2차선 도로변, 매1억 3천만
▶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답9,341㎡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2억7천만
▶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전7,547㎡ 2차선도로변 매3억2천만
▶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전 2,820㎡ 2차선도로변 광주시 대촌동경계 매1억7천만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답 13,530㎡ 면 소재지 매3억원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배 과수원3,871㎡ 주택, 창고적합, 도로양호 매9천5백만
▶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답7,610㎡ 2차선 국도변 도로변, 투자유망매1억5천만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1,384,140㎡ (대지,농지포함) 소나무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30억원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 (전) 배 과수원24,884㎡ 매4억8천만
▶영암군 금정면 청용리 임야 91,446㎡ 도로양호, 투자유망 매3억3천만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전(일부대지) 배 과수원4,914㎡ 4차선 국도변, 자연녹지, 판매장 적합 투자 유망 매12억5천만
나주시 산포면 산포로 451
이준상 ☎ 010 9510 1150

법원경매
광산구 소촌동 2종주거지역 15m도로접 대지400㎡ 건물1~2층 295㎡ 카센터 세차장이용중 2층안집 감정가 3억7천9백 최저가 3억3백만원
북구 충효동 취가정일대 전945㎡~3,260㎡ ㎡당 6만원대, 원효사음식점 이주예정지 최저가 5천5백~1억9천만원, 투자가치 최고
담양군 금성면 근린시설대지 30,308㎡ 2층건물 2,916㎡ 현재 민속박물관(요양병원, 수련원,전원주택개발가능) 감정가 28억 최저가 10억
보성군 율포해수욕장인근 상가 토지556㎡ 건물1~2층 500㎡ 팬션 및 음식점, 상가추천, 도로접 감정가 4억1천2백 최저가 1억4천8백만원
부동산재테크 전문
다와옥션 김용희부장
010-7147-4989

(주)전국부동산 경매연구소
법인등록번호 200111-0181150
법인사업자번호 650-81-00051
초저금리(예금/대출) 시대에 재테크의 지름길은 "부동산 경매" 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안정된 재산 증식을 원하시는 분
·경매를 배우실 분(무료) (정년,명예퇴직 하신 분 환영)
·부동산 관련 고충, 행정처리 (무료상담)
취급물건
투자가치있는 전국부동산경매물건
사업의 종목
·부동산 중개업(매매/임대)
·경 · 공매 권리분석 취득 알선업
·경 · 공매 부동산 명도 용역업
·주택 건설업
보유자격증
◆ 공인중개사,경매사, 행정사
◆ 토목기사
방문 및 상담
062-449-2552
010-3441-1308 (주/야)
062-449-2552@daum.net
수익금 일부는 생명사랑운동본부에 후원합니다.

상업지역 급매
전남 영암군 상업지역
호텔/모텔 무인텔
즉시 건축 가능 건축허가 완료!
위치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상업지역
면적
330㎡ / 660㎡ / 1,320㎡
3.3㎡당 180만원
주인직
010-5450-1172